

전주시 덕진구, 시민중심 행정 구현 총력

‘스마트한 비대면’ · ‘소통 · 공감’ · ‘맞춤형 복지’ · ‘안전’ · ‘생태’ 행정 등 5대 기본방향 제시



장병호 덕진구청장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장병호)가 올해 현장 중심의 긴밀한 소통 행정을 중심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안전·생태 행정을 꼼꼼히 챙겨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장병호 구청장은 19일 열린 신년 브리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도약하는 시민중심 행정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구정 운영을 위한 2021년도 5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5대 기본방향은 ▲포스트코로나, 스마트한 비대면 행정 ▲시민중심 현장행정, 함께하는 소통·공감행정 ▲수요자 중심의 다가가는 맞춤형

복지행정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행정 ▲아름답고 쾌적한 명품 그린뉴딜, 생태행정 등이다.

덕진구는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대면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한 비대면 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민 정보화교육의 경우 비대면 화상강의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지방세 환급도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간편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과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스마트한 행정도 강화된다.

구는 또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현장중심의 소통·공감행정을 구현하기로 했다. 발로 뛰고 보고 듣는 현장행정을 구현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

가기로 했다. 공시지가 현장설명, 학교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등 배려를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수요자 중심의 다가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덕진구에서도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 3개 분야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된 만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 어린이 체험교실, 어르신 실버가요교실, 결혼이주여성 대상 외국문화전도사 사업 등 세대별·계층별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

구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행정에도 주력한다. 코로나19와 재난 상황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

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도로·교통 체계와 식품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끝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명품 그린뉴딜, 생태행정 분야의 경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 속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산책로와 운동시설, 편의시설 등 유지보수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꼼꼼한 지도점검을 통해 깨끗한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장병호 구청장은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한해를 보냈지만 2021년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이끌기 위해 현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며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 품격 있는 덕진구를 구현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노인회관’ 진북동에 건립

노인 복지 향상 등 위해 12월까지 총사업비 61억원 투입

전주지역 노인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노인회관이 쾌적한 공간에 조성된다.

시는 상반기 중 건축기획·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뒤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해 연말까지 준공을 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오는 12월까지 총사업비 61억원을 투입해 진북동에 전주시 노인회관을 건립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효자동에 있는 전주시 노인회관이 연면적 4,023.82㎡, 지하1층, 지상 8층 규모의 덕진구 팔달로 336(진북동) 건물에 동지를 틀게 되는 것이다.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가 쓰는 1~3층은 노인대학과 강당, 다목적실 등 노인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시설들이 들어서고, 4층은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가 들

어선다. 5~7층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간으로 활용된다.

시는 상반기 중 건축기획·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뒤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해 연말까지 준공을 할 예정이다.

시는 전주시 노인회관이 건립되면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찾아오기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전주시 노인회관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수어통역·유럽언어 해설사 모집

전주시, 28·29일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대상자 4명

전주시가 오는 28일과 29일 수어통역과 유럽언어가 가능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대상자 4명을 모집한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전주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문화관광지를 해설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 현재 54명이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모집 인원은 수어통역 2명과 프랑스어 1명, 스페인어 1명이다. 유럽언어권 문화관광해설사는 전북에서 처음으로 선발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1월 18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정확한 언어구사능력과 관광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자다. 관광 분야나 수어·외국어 분야 자격증 소유자나 전공자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진다. 희망자는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지원 신청서 등을 작성해 등기우편(안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6층 관광거점 도시추진단)으로 신청하거나 이메일(young1126@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글로벌마케팅팀(063-281-26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기본 소양과 전주 지역 문화관광자원 에 관한 필기시험과 함께 분야별 전문 기술과 함께하는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 달 1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신규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실무수습을 3개월 이상 거쳐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전주 관광의 첫 이미지를 전하는 역할을 맡아 시민감을 더해 활동해주고 있다”면서 “수어통역과 유럽언어 능력을 갖춘 문화관광해설사가 합류하면 좀 더 다양한 분야의 문화관광해설을 제공함으로써 여행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지방방무청, 전문·산업 기능요원 군사교육 소집일자 본인선택 접수

전북지방방무청(청장 이영희)은 2021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접수를 오는 22일 10시부터 방무청 홈페이지에서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제도는 병역 지정업체의 연구·제조생산 활동과 병역의무자의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인선택은 복무기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해 선착순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을 고려해 신청할 것과 본인선택을 취소한 경우 1회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본인선택 취소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북지방방무청 군사교육소집 일자별 공식배정 현황은 전북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2021년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군사교육소집 본인선택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북지방방무청 사회복무과(063-281-2143)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와 전주정원문화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9일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 도시공공정원 참여작가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전주정원문화박람회 작가 현장설명회

전주시와 전주정원문화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9일 노송동 일원에서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 도시공공정원 참여작가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는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발전을 위해 오는 6월 2일부터 닷새 동안 전주 종합경기장, 기린대로, 노송동 일원, 호동골 양묘장 등 4개 구역에서 열리는 박람회다. 도시공공정원 분야의 경

우 노송동 일대 자투리땅을 활용해 50~100㎡ 면적 내외의 작가정원으로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현장설명회에서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전문 작가 24개 팀과 시민 작가 10개 팀이 참여해 ▲현장 답사를 통한 대상지 파악 ▲작품 전반에 대한 설명 ▲정원 조성방향 및 향후 추진 일정 공유 등을 진행했다. 작가들은 대상지 7개소를 돌아보면서 완성도 높은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상지 특성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마을 주민들의 매일의 일상과 함께하는 'Public Daily Garden'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전문 작가의 경우 3,500만원 내외, 시민 작가에게는 1,000만원 내외의 조성비용이 지원되며, 조성 후에는 오는 5월 현장심사를 통해 ▲대상(1팀) 500만원 ▲우수상(전문작가 1팀, 시민작가 1팀)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